

2005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편집위원회 편

2005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편집위원회 편



북룡강
조선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2005中国朝鲜族文学优秀作品集/中国朝鲜族文学优秀作品集编委会编. —牡丹江: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2006.7

ISBN 7-5389-1334-3

I. 2... II. 中... III. 朝鲜族-少数民族文学-作品综合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91.9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6)第 083518 号

书 名/ 2005 中国朝鲜族文学优秀作品集
编 者/ 中国朝鲜族文学优秀作品集编委会
责任编辑/ 金声宇 柳大植
责任校对/ 金海燕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印 刷/ 牡丹江书刊印刷厂
开 本/ 787mm × 1092mm 1/16
印 张/ 33.25
字 数/ 650 千字
版 次/ 2006 年 6 月第 1 版
印 次/ 2006 年 6 月第 1 次印刷
印 数/ 1-1 000 册
书 号/ ISBN 7-5389-1334-3/I·447(民文)
定 价/ 49.80 元

(如印装质量有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调换)

한권의 책으로 보는 중국조선족문학

-머리말을 대신하여

남영전

중국 55개 소수민족중 200만 인구에 500여명의 작가군을 가진 조선족의 문학창작활동은 예나 지금이나 상대적으로 활발한것이 하나의 자랑이기도 하다.

현하 중국조선족문단에서는 문학지인 《연변문학》, 《도라지》, 《장백산》, 비평지인 《문학과 예술》, 아동문학지인 《아동문학(별나라)》, 그리고 언론지인 《연변일보》, 《흑룡강신문》, 《료녕조선문보》, 《길림신문》, 《중국조선족소년보》 등 잡지, 신문에 해마다 많은 문학작품이 발표되고있고 적지 않은 잡지사와 신문사에서는 해마다 우수작품평선활동을 통하여 작자들을 고무하고있다.

비록 중국조선족문학원지가 많다고는 할수 없지만 독자나 연구자가 그해 우리 문단의 우수작품을 알려고 이상 5개 잡지와 5개 신문을 한손에 다 챙긴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번씩 우리 문단 점검과 총화의 필요, 문학사료의 축적과 홍보의 필요로 한해에 한권의 책으로 보는 중국조선족우수문학작품집이 필요한것이다.

고마운것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가 중국조선족문학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이 일을 구상했고 또한 실천에 옮긴것이다. 출판사에서는 2005년 하반기에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잡지사와 신문사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12월부터 각 잡지사와 신문사로부터 우수문학작품을 모으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금년 3월에는 출판심사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성원들의 모임을 출판사에서 가졌다. 애초부터 관계자들은 이 일에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이번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세질문제에 관한 진지하고 책임성있는 토의를 하였다.

출판사에서는 2006년을 시점으로 매년 해당 잡지사, 신문사들로부터 추천해오는 작품들을 모아 소설편(중편 망라), 시편, 수필편, 아동문학편(아동소설, 동시, 동화 망라), 평론편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그해에 발표된 문학작품목록을 첨부하여 50만자좌우분량으로 해마다 한권의 예쁘고 가치있는 작

품집을 묶기로 하였다.

해당 잡지사, 신문사와 출판사 그리고 관계인사들의 합심과 노력으로 몇 달후인 지금 《2005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이 독자들과 대면하게 되었다. 이 책의 출판은 중국조선족문단의 경사가 아닐수 없다.

이제부터 중국조선족문단은 매년 하나의 문학의 산을 쌓게 되었다. 독자들과 연구가들은 이 수려한 문학의 산책속에서 즐거움을 찾게 될것이다.

참으로 축하드려야 할 일이다.

재삼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에 감사드리고 해당 잡지사, 신문사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06년 6월 장춘에서

차 례

- ◆남영전 한권의 책으로 보는 중국조선족문학
-머리말을 대신하여...1

소설문학

- ◆김 혁 불의 제전...3
- ◆강효근 살아 숨쉬는 상흔...44
- ◆최국철 성(城)을 찾습니다...74
- ◆권중철 아, 녀의 자취여...98
- ◆박옥남 등지...127
- ◆허련순 그녀 몸속의 고양이 열마리...143
- ◆조성희 리탈...160
- ◆리진화 바늘...175
- ◆박상춘 몬테비데오의 해변가에서...188

시문학

- ◆석 화 빈들(외2수)...201
- ◆김학송 안개(외2수)...204
- ◆리삼월 산길(외3수)...206
- ◆박춘월 포도주(외3수)...209
- ◆김일량 풀빛(외3수)...213
- ◆신현철 날개1(외2수)...216
- ◆윤청남 샘물...219
- ◆모동필 거꾸로 흐르라, 두만강아!(외1수)...220
- ◆김영춘 처음처럼 사랑할수 있을까?(외1수)...223
- ◆김기덕 하얀 눈꽃처럼...225
- ◆김 파 비둘기 깃 하나(외3수)...226
- ◆리홍규 나비의 침묵(외1수)...229

- ◇정호원 할머니...231
- ◇김영애 장독(외1수)...232
- ◇강효삼 할아버지 무덤흙...234
- ◇심명주 시가 왔던 날(외1수)...235
- ◇임은숙 창밖엔 비물이 내 마음엔... ...237
- ◇벗 우리네 살아...238
- ◇리태학 차맛...240
- ◇역 마 추석은 그리워서 서글퍼서(외1수)...241
- ◇김룡철 엄마 고무신...243
- ◇림금산 초가...244
- ◇김응준 흙...245
- ◇편도현 퇴마루에 아버님 신발 놓아드립니다...246
- ◇박성훈 낚시질 이야기(외1수)...248
- ◇리문호 미풍...249
- ◇김창희 가을변명, 그리고 여린자여!...251
- ◇김동진 산...252
- ◇홍영빈 그림자를 두고...255
- ◇류은종 인생 3부곡...256
- ◇김철우 도시인...257
- ◇윤 금 꿈꾸는 들...258

수필문학

- ◇남영도 가을, 성숙, 너자 그리고... ...261
- ◇오태호 유모아의 색조...265
- ◇양은희 꽃은 지고 욕망은 남고...269
- ◇장정일 보름달...272
- ◇현영애 당신은 잃어버린 신발 한짝을 찾으셨나요?...275
- ◇최균선 석양 태운 상념...279
- ◇주향숙 풍경으로 바라볼수 있다면...281

- ◇김점순 요즘 간 큰 남자…283
- ◇류원무 중국장기와 조선장기…287
- ◇산 천 술파도소리…291
- ◇리선희 겨울산행과 겨울나무…294
- ◇류 성 마음이 숨쉬는 계절 그리고 반전의 달…300
- ◇강효삼 따듯했던 그해 겨울…304
- ◇최영옥 엄마가 되는 리유…307
- ◇박미옥 뮤직의 가락…311
- ◇최 철 도형으로 보는 인간은… …314
- ◇김춘실 내가정의 술향기…316
- ◇서정순 김장철 정서…318
- ◇김순희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322
- ◇조광명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너는 그렇게 한다…326
- ◇허무궁 추석달을 서천에 바래줘야 하는데…329
- ◇김동규 형, 부디… …331

아동문학

- ◇최동일 룡이의 산…337
- ◇전춘식 나는 왜 울어야만 했을가…345
- ◇전춘식 클라리네트 부는 아저씨…354
- ◇김미란 광고성의 틀려시장…356
- ◇전복록 돌이의 꿈이야기…364
- ◇정문준 조지아도의 펭귄새…370
- ◇김 군 거부기와 토끼의 경주…376
- ◇전복록 목 떨어진 꽃…378
- ◇박룡원 항아리속의 해…380
- ◇김득만 대낮음악회…382
- ◇강효삼 락엽(외1수)…383
- ◇김일량 풀이슬(외1수)…384

- ◇지영호 캄가루…385
- ◇강 려 가을날…386
- ◇김철호 숲속학교…387
- ◇지영옥 락엽…388
- ◇김만석 숲속나라…389
- ◇림금철 백두산…390
- ◇한석운 풀꽃…391
- ◇최문섭 벚꽃…392
- ◇류은중 아기옷…393
- ◇한영남 가시가시내…394
- ◇림금산 가을이야기…395
- ◇최광호 사랑은…396

문학비평

- ◇장정일 로신계보의 작가 김학철에 관한 노트…399
- ◇김호웅 근대문명에 대한 성찰과 서정의 육화…412
- ◇오상순 20세기 80-90년대 조선족소설에
 나타난 비판의식…432
- ◇산 천 수필취라기공원의 새성원과 생존의 곤혹…450
- ◇장춘식 성장의 아픔을 넘어…458
- ◇리 합 《북향회》와 강경애고문의 활약상…465

◇김호웅 전환기 조선족문학의 현주소와 전망

— 《2005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을 읽고…473

[부록] 2005년도 중국 조선문 잡지, 신문 문학작품목록…487

□ 소 설 문 학 □

중편소설

불의 제전

김 혁

... ..

모든 악장(樂章)은 끝났는데
그치지 않고 울리는 선율이여
착지(着地)할수 없는 다리여
멈출수 없는 팔이여

몸체에서 떨어져나간채
떠돌아다니는 팔
조약하는 자세로 뻗쳐있는 다리여...

모든 악장은 끝났는데
착지할 땅이 없어
허공에서 수직으로 거둑 꽃히기만하는
다리 없는 토슈즈(발레배우들이 신는 무용신)여

-정한모의 《춤의 판타지아》에서

진,불을 느끼다

진(眞)이 가장 무서워하는것이 하나 있었다.
엄동이면 홀쭉한 배로 눈빛이 매워져 부락까지 내려오는 늑대가 아니었
다.
숲을 지나다 무심히 건드려도 사정없이 이마뼈기를 쏘는 말벌이 아니었
다.

부락사람들을 때죽음으로 들것에 들러나가게 하던 온몸에 창이 생기는 병도 아니었다.

진이 가장 무서워하는것은... 바로...

불이었다!

초동머리적, 화덕앞에서 장난질치다가 그만 이글거리는 화덕에 얹어졌다. 어머니가 재빨리 일으켜세웠지만 얼굴 반편이 불에 데고말았다. 지금은 왼편 이마전에 동전잎만한 흉터로 남았지만 불이 주던 강렬한 인상의 아픔은 마음속 깊은 곳에 력력히 찍혀있다.

불을 무서워하던 진이 불을 좋아하기 시작한것은 어느 봄, 부락에서 화신제(火神祭)가 있는 날부터였다.

마을의 남쪽에 우뚝 치솟은 산, 적봉(赤峰)기슭에서 화신제 잔치가 펼쳐졌다.

매양 봄이 오면 부락에서는 불을 다시 지핀다. 족장과 부락의 년장자들이 적봉의 동혈(洞穴)에 모신 불로부터 집집의 아궁이의 불까지 모두 꺼버리고 새로 불을 지핀다. 불도 일년내내 같은 불을 계속해서 쓴다면 기운이 쇠진한다는 뜻에서 부락사람들은 새불을 일으켜 새봄을 맞이하곤 했다. 이날이면 부락사람들 모두가 떨쳐나 해가 떨어지도록 화당(火塘)에서 타오르는 불을 둘러싸고 광열의 춤을 추곤 했다.

그렇게 진이네 부락, 남하(南河) 사람들은 불을 숭배하는 족속이었다.

그날 명절기분에 아침부터 붕- 떠있는 사람들을 물어서 진은 화신제가 열리는 적봉기슭으로 나왔다. 화당은 여느때보다 더 넓게 꾸며져있었고 그속에는 불땀이 좋은 잘게 썬 장작들이 가득 무져있었다.

정오가 되었다. 화신제가 열리는 시간이다. 장대한 키꼴을 가진 족장 핑(宏)이 마을 년장자들의 옹위하에 나타났다. 림름한 얼굴로 사람들을 둘러보고 나서 핑이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족장을 따라 수천명의 부락사람들이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다. 족장의 입에서 격양된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땅을 굽어살피시는 천지신명이시여! 추위와 기아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불을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춥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배를 굶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처럼 따뜻하게 하소서...

부락사람들이 따라서 족장의 말을 복창하였다.

-우리에게 불을 주소서!

우리에게 불을 주소서!!

하늘 우리러 비원(悲願)을 마치고나서 족장이 무언가 머리에 받쳐올렸다.

거울, 금박칠을 올리고 태두리에 문양을 새긴, 양경(陽鏡)이라는 이름의 불을 지피는데 사용되는 거울이었다.

족장이 양경을 들어올릴 때 그 번쩍이는 빛이 눈에 쏘여와 진은 눈시울을 좁혔다. 족장이 양경을 들어 화당의 장작개비에 대고 비추었다. 정오의 태양은 찬란했고 양경에서는 태양의 빛이 반사되어 쏟아져나오고있었다. 모두들은 숨을 껐 죽이고 양경을 지켜보았다. 수천쌍의 눈이 오목거울이 실어낸 빛줄기가 물부어져있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있었다.

이때, 북소리가 울렸다.

둥둥! 나지막한 북소리가 울렸다.

나지막하지만 사람들의 눈귀를 순간에 앗아가는 북소리가 울렸다.

십여명의 동자들이 저마다 손북을 두드리며 동굴로부터 나오고있었다. 동자들은 저마다 머리에 빨간 천을 두르고있었고 빨간 버선을 신고있었다.

무용단의 춤추는 아이들이었다. 화신제때면 춤을 추는 아이들을 부락에서는 화동(火童)이라고 불렀다. 부락에는 화신무용단(火神舞踊團)이라는 단체가 있었다. 화신무용단 성원들은 족장 핑 다음으로 부락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화동들의 북소리가 점점 잦아졌다. 잦아지는 북소리와 더불어 동굴에서 짐승 한마리가 뛰어나왔다.

화견(火犬)이었다.

불을 먹고 사는 불개였다.

일신이 붉은 털로 덮여있는 개는 무용단에서 기르는灵兽이었다.

개가 하늘을 바라고 경경 짖었다. 이어 동굴로부터 또 한사람이 나왔다. 백발동안의 로인이었다. 유난히도 긴 눈섭을 가진 로인은 붉은 수건으로 이마를 질끈 동이고있었다. 옷동은 벗고있었는데 해벌에 그을린 몸체는 검붉었다. 허리에는 붉은 띠를 두르고있었고 신은 동자들처럼 역시 빨간 버선이였다.

그 사람이 다름아닌 명(明)이었다.

명은 무자(舞者)였다.

화신무용단을 거느리는 최고의 무용수였다. 무자는 부락에서 뛰어난 무용수에게 주는 급별이였고 한부락에 무자는 단 한명뿐이었다. 무자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칭호는 부여된다.

부락사람들의 응시속에 무자는 두팔을 량쪽으로 뻗었다. 머리를 뒤로젖혔다. 북소리의 박자에 맞추어 무동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소리와 함께 홀연, 새가 하늘로 솟아오르듯이 몸을 훌쩍 솟구며 무자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훨훨! 훨! 휘어얼!

불이여 타올라라

타올라라 불이여...

북소리가 높아져갔다.

양경에서 쏟아져나오는 빗줄기가 굽어져갔다.

자작나무에서 실연기가 피여오르기 시작했다.

컹컹! 불개가 짖어댔다.

무자의 춤사위가 거세어져갔다.

훨훨! 훨! 휘어얼!

내가 불이여라

네가 불이여라

북소리가 높아져갔다.

양경에서 쏟아져나오는 빗줄기가 점점 굽어져갔다.

자작나무에서 파란 실연기가 피여오르기 시작했다.

컹컹! 불개가 사납게 짖어댔다.

무자의 춤사위는 절정에 치달아있었다. 뽀뽀한 땀냄새를 떨어뜨리며 춤에 몸을 내던지고있는 무자는 꼭마치 신들린 사람 같았다. 그는 부락사람 모두를 흥분하게 만드는 괴력을 지니고있었다.

드디어 자작나무에 불이 확! 댕겨졌다.

-불이다아!

사람들이 환희에 넘쳐 괴음을 질렀다. 우르르 화당을 둘러쌌다. 따스한 불의 기운에 눈을 느스름히 감으며 만족의 신음을 토했다.족장이 양경을 거두며 절절 방성대소를 하였다.

그러나 무자의 춤은 멈추지 않고있었다. 무자의 왕소금이 돋은 등어리가

화염처럼 꿈틀거렸다. 불을 둘러싸고 무자는 땀을 들고있었다. 불을 탐하는 한마리 짐승처럼 불을 먹으려, 불을 먹으려.

북채에 달린 붉은 술이 춤사위에 맞추어 나뭇기고있었다. 북소리도 끊기지 않고있었다. 노래소리도 끊기지 않고있었다. 북소리속에서 노래소리속에서 무자는 완연 타오르는 한줄기 불이 되어있었다.

훨훨! 훨! 휘어얼!

내가 불이여라

네가 불이여라

우리는 불이여라

진이 철이 들어 처음 보는 화신무(火神舞)였다. 잔뜩 키워진 동공으로 해빛과 불줄기와 사람들이 어우러져 열기로 출렁이는 춤마당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진의 기억속에서 잠자고있던 그런 풍경인것 같았다.

진은 단추가 물에 닿았을 때처럼 아찔한 충격을 느꼈다.

진의 작은 가슴은 금세 뜨거운 불씨 한톨을 머금은듯했다. 그 불씨는 혈관을 타고 진의 사지로 뻗어나갔으며 나중엔 명치끝에 모여 타올랐다. 그 불길은 진의 작은 육신을 태워버릴것만 같았다. 정체불명의 충동이 특막쑈에서 솟구쳤다. 불의 장력(張力)에 끌리듯 진은 저도 모르게 팔팔을 펴들고 팔죽지를 길게 뻗었다. 무자의 춤사위를 모방하여 머리를 뒤로 젖혀버렸다. 정오의 대공에서 태양은 빛나고있었고 진은 눈확 가득 넘쳐오르는 눈물을 주체할길 없어했다.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떠올라도 화신제의 열기는 식을줄 몰랐다. 화신제는 해불놀이로 이어졌다. 달이 뜨면 아이들이 각자 해불을 들고 벌판에 모여든다. 발가운데 지경을 그어놓고 해불싸움을 벌린다. 어른들이 불싸움이 위험하다고 아이들을 못나가게 하는 법은 없다. 오히려 해불을 더 크게 만들어주면서 나가서 용감히 싸우라고 등을 떠민다. 예로부터 해불싸움에 나가지 못하면 성인대접을 못받는다곤 여기기때문이다. 곧 해불싸움은 일종의 성인식(成人式)이었다.

들은 불천지였다. 함성이 일었고 서로 부딪치는 해불에서 불씨가 꽃살처럼 튀었다. 불이 무서웠던 진이 해불을 들고 맨앞에서 달린다. 어제날 불이 무서웠던 진이 아니였다. 목청 깨져라 소리소리지르며 해불을 휘두르는 진은 어느결에 훌쩍 웃자라있었다.

온몸이 검댕이투성이가 되어 들어서는 진을 보고 어머니가 놀란 눈매를 지었다.

-해불놀이애 갔어요.

얼굴이 거뭇게 그을린 진이 이발을 하얗게 빗내며 말했다. 어머니가 다가가 진을 껴안아주었다. 그을음냄새가 나는 진의 머리를 꼭 껴안아주었다.

-우리 진이 다 컸구나.

어머니는 화신제날이면 집집마다 먹는, 빨간 실고추를 넣어 해처럼 둥글게 부친 전(煎)으로 저녁상을 마련해놓았다. 떡을 뜯다 말고 진이 입을 열었다. 나지막하나 힘이 실린 소리로 말했다.

-오마니 나 춤 배우고싶어.

진, 불을 찾아가다

적봉(赤峰)은 잠든 화산(休眠火山)이었다.

그리고 불을 숭배하는 남하(南河)족에게서 적봉은 성산(聖山)이었다.

역시 불을 숭배하는 건너부락 산북(山北)족에게도 적봉은 성산이었다.

남하족과 산북족은 본디 뿌리가 같은 족속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던지 왜서였던지 서로 창을 들이대고 화살을 쏘아대면서 반목했고 지금은 두 부락으로 나뉘어져 살고있는것이다.

두 부락사이에 지경을 표시하는 돌각담이 쌓여져있다.

적봉의 화산들을 주어 쌓은 담이었다.

담은, 어찌나 길었던지 그 길이를 재일수 없었다.

모두들 남하부락을 끼고 흐르는 강만큼 길거라고 했다.

담은, 어찌나 높았던지 그 높이를 재기 어려웠다. 모두들 적봉의 반높이는 될거라고 했다.

그 담을 사람들은 《곡성(哭城)》이라 부른다. 두 부락에서 상잔의 변을 일으키면서 무수히 죽어간 영혼들이 그 담부근에 묻혀 밤이면 움울한 울음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화신무용단은 적봉기슭에 화산석으로 지은 돌집에 있었다. 불춤을 배워 주는 그곳을 가리켜 부락에서는 《화택(火宅)》이라 하였다.

화신제를 치른 이튿날, 진은 화산석으로 계단을 깎아 산길을 치달아 《화